

**천불교교실 개원 음악회**  
광우 전국비구니회장은 11월 1일 오후 2시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찬불가교실과 수화교실 개원에 앞서 음악회를 개최한다. 023411-8103

**해인승가대 동문회장 유임**  
세민 해인승가대학 총동문회장(해인사 주지)은 24일 해인사에서 열린 총동문회에서 2년 임기의 신임회장에 다시 선출됐다.

**25교구 본말사 주지 연수**  
일면 봉선사 주지는 11월 8~13일 인도네시아로 성지순례를 겸한 25교구 본말사 주지 해외연수를 떠난다.

**'아름다운 마음...' 주제 강연**  
혜승 의성 고운사 주지는 18일의 성근노인복지회관에서 개최한 경로의 달 기념행사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는 법' 주제강연을 했다.

**보살계 수계식·민들불사**  
지허 순천 선암사 주지는 11월 2일 선암사에서 대각국사 탄신 947년 기념 보살계 수계식과 민들불사를 봉행한다.

**장애인경기 성공기원 효도잔치**  
정여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이사장은 24일 부산시청 옥외공연장에서 아 태 장애인경기대회 성공기원 효도 잔치회를 열었다.

**일 주 문**

**불화·서각반 전시회 개최**  
범하 통도사성보박물관장은 박물관 문화학교 제4회 불화반, 서각반 작품 전시회를 30일~11월 4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연다.

**마정수가 수계대법회 봉행**  
운성 대구 광덕사 주지는 24일 광덕사 대웅전에서 중국 관정 큰스님 초청 마정수가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신서 '달마전' 열어**  
일허 밀양 영천암 주지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에서 '달마전'을 개최한다. 0511866-1902

**이동 목욕차량 기증 받아**  
지현 영주시장애인복지관장은 17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중증 재가장애인용 이동목욕 차량을 기증 받았다.

**경찰범우회원과 성지순례**  
성인 부천 남부경찰서 경승실장은 30일 원주 관음사로 경찰범우회원 35명과 함께 성지순례를 떠난다.

**세계불교미술전 서각 출품**  
혜안 조계종 문화회장은 11월 21~2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세계불교미술전' (태국 왕실 주최)에 초대받아 서각 10점을 출품한다.

**30일 불교TV 이사회**  
이수덕 불교TV 대표이사는 30일 오후 2시 서울 홀리데이인서울 지하 1층에서 제40차 불교TV 이사회를 개최한다.

**천목도모 배드민턴 대회**  
배선혜 대구 영남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은 27일 대구 우리길 주차장에서 회원화합과 천목도모를 위한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인성개발 세미나**  
김형중 파라미타 청소년문화연구소장은 11월 2일 명성여자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청소년 인성개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영탑사 등으로 문화기행**  
김현준 불교신행연구원장은 11월 3일 영탑사와 대련사, 향천사로 불교문화기행을 떠난다. 02587-6613

**수안스님초청 선사화전**  
박정석 불교TV 대구지사는 15~2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수안스님 초청 선사화전을 개최했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텔레비전 의지하고 사는 할머니

**말 벗이라도 있었으면...**

"아무 것도 모르는 늙은이가 도움만 받아 먹으면서 사람은 플라 분다고 나무라지 마시오."  
83세인 정봉연(서울 수색동) 할머니. 만나는 사람마다 미안하다 말하는 것이 입에 뱀다. 늙은이가 빨리 죽지 않아서 젊은 사람만 고생시킨다는 것이다.  
정 할머니는 5년 전 관절염이 도져 걷지 못하게 되면서 10년 넘게 해 온 공공근로 일도 이 때 그만 두었다. 그 후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동무 삼아 그러 지력 지내 왔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가끔 찾아오는 친구 할머니가 있었지만, 그 친구마저 훌쩍 저 세상으로 가버려 온 종일 말 한 마디 못 하는 날이 부지  
자들이 증손자를 낳은 것도 안다. 하지만 딸들이 사는 형편이 어려워 선택도 외달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 "복이 없는 길 어떻게 해. 외로운 것도 한 해 두 해 지."라며 자손 걱정이 앞선다.  
정 할머니가 사는 방안은 늘 말끔하게 정돈이 돼 있다. 정부 보조금에 의지해 살망정 정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단칸방을 뒹고 또 뒹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소원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며 등을 박박 한번 밀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목욕은 꿈도 못 꾀다. 은평노인복지관에서 이동 목욕차량을 운영하는 것을 알지만 그림의 떡이다. 목욕차가 골목이 좁아 집까지 들

관절염 도져 10년 해온 공공근로도 못해 "따뜻한 물로 목욕이라도 자주 했으면"



정봉연 할머니의 친구는 텔레비전뿐이다. 얼마 전 그동안 말벗이 돼왔던 유일한 친구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기수다. 가슴의 답답함을 풀어보려고 문밖을 나서 보지만 몸이 아파 말마 걸지도 못한다.  
정 할머니는 삼일운동이 끝난 직후인 1920년,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월이 들기도 전인 열다섯 살에 대전으로 시집을 갔다. 시집도 역시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 생선 자판을 매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고, 한 겨울에 떡 장사 등 장사란 장사는 한탄씩 해 왔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하면 51살까지도 방 한 칸, 땅 한 떼기 마련할 수 없었다.  
"우리 손자가 한 마흔 다섯쯤 될거유. 아마 우리 증손주도 고등학생은 족히 될 거유." 정 할머니는 두 딸을 낳았다. 두 딸은 아들을 낳았고, 정 할머니는 손  
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몇 년 사이 목욕을 제대로 한 날은 손꼽을 정도.  
할머니가 지나가면 사람이 사놓고 갔다는 갑갑을 꺼내 놓는다. "난 많이 먹었다유. 아차과 노인들은 신 음식은 잘 먹지 못하는데 이거라도 자식구라."  
을 겨울 난방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걱정인 정 할머니지만 찾아온 사람에게는 꼭 대접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하듯, 관절염 때문에 통통 불은 손으로 글을 하나 가서 다 정성스럽게 내린다.  
연락처 02376-0716  
후원계좌 기업은행 예금주 정봉연 210-000489-01-041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a.com

**"시간·예산에 쫓기지 않고 보수"**

미륵사지석탑 해체 1년 김봉건 문화재연구소장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 된 석탑인 전북 익산 미륵사터 석탑(국보 11호)이 전면 해체에 들어간지 31일로 꼭 1년이 된다. 2007년까지 총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문화재 보수 사상 최대의 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김봉건(진전) 국립 문화재연구소장은 "문화재 해체 보수를 위해서는 이제 뭐든지 '빨리 빨리' 해야 된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해체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  
"현재 3층을 해체 중이다. 지붕돌, 받침돌, 몸돌 순으로 해체할 때마다 부재 하나 하나에 대해 사진과 정밀 실측도 작성은 물론 3차원 영상 데이터를 담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전체 3000여 개 중 180여 부재를 해체했다."  
▲일제가 덧붙여 놓은 시멘트를 떼 내



는 데 어려움은 없나?  
"시멘트 해체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탑의 원래 부재와 시멘트가 함께 붙어 있는 미세한 부분은 아직 그대로 두고 있다."  
▲해체 이후 복원은...  
"현 상태로 6층으로 할지, 9층으로 할지,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1400년 이상 된 부재를 얼마나 그대로 쓸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우리 나름의 철학을 세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권현진 기자 innny@buddhapa.com

**전 대통령 내외의 "...깨달음"展 관람**

전두환 전 대통령은 23일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사)불교문화산림기획단이 사장 도후스님 주최로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 전시회를 관람했다.  
전 대통령은 "불교미술의 새로운 창작세계를 감상했다"면서 "아내와 함께 그동안 불교미술전시회를 자주 관람해왔는데 우리나라 부처님은 중국의 부처님에 비해 매우 잘 생겼다"고 느낌을 들려줬다. 전 대통령이 또 차남 재웅씨가 미술에 관심과 재능이 있어보인다고 말하자 부인 이순자 여사는 "금생에는 전혀 미술을 배우고 경험할 기회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전생에 닦은 인연과보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안현태 전 경호실장, 이상희 전 건설부장관, 이양우 변호사 등 측근과 전직 각료 부부 등 40여명이 함께 관람했다.

**"불자로서 할일 했을뿐인데..."**

자원봉사자대회서 복지부 장관상 이계숙씨

23일 열린 '2002 전국사회복지 자원봉사자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계숙 씨(조계종 사회복지재단·47). 평범한 주부인 이 씨는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도 많은데 그들이 받을 상을 혼자 받다 미안할 뿐"이라며 겸손해 했다.  
이 씨가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94년 6월, 조계종 복지재단이 실시한 전문자원봉사자 교육(현재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수료한 이 씨는 이 때부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봉사활동을 했다. 특히 96년부터는 부모가 골레버린 중증 장애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시립 아동병원(서울 양재동)을 찾아가, 이들을 씻기고 입히고 먹이는 일을 매주 1번씩 꾸준히 해 왔다. 최근에는 복지부장애인복지관에서 중풍으로 몸을 가누기 힘든 노인들을 위한 발반사요법 시술도 매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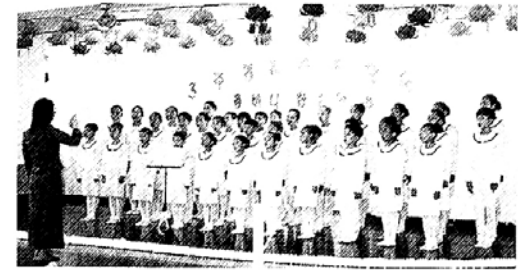


"아동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알 풀이나 악물 남용 등 부모가 잘 못한 경우가 많다"는 이 씨는 이런 불행한 인연이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봉산 천축사에 가서 기도를 하곤 한다.  
"매주 이틀씩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협조 때문"이라는 이 씨는 "앞으로 늙어서 더 이상 봉사를 못할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a.com



**논산훈련소 훈련병 위문 법회**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20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훈련병 4천여명을 위한 위문법회를 열었다. 대한불자가수회 소속 회원 5개팀의 공연과 훈련병으로 있는 불자가수 총경민 씨의 특별공연을 함께 진행했다.



**회룡사 룸비니 합창단 음악회**

회룡사 룸비니 합창단 단장 성견스님은 19일 의정부 자비회관에서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에는 종호, 성열, 성환, 지황 스님 등 비구니 스님을 비롯, 좋은일하는사람들모임 윤상국 국장, 다루리모임 오대성 실장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호로 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 상담문의 : 053-652-3300**